

청년생활 8

천리마의 젊은 기수들



룡성 기계 공장 주 성일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며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로력하고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주소 평양시 선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전화 2—38—58, 2—82—81
1960년 8월 5일 인쇄 1960년 8월 10일 발행
(값 30전) 100,100부 발행 7—31412

8
(131)
1960

명절 맞는 청년들에게

오 백 룡

우리는 오늘 커다란 긍지와 감격을 안고 8. 15 해방 열다섯 돐을 맞는다. 나는 이 뜻 깊은 민족적 명절을 맞으면서 공장과 농촌, 밀림과 바다—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보람찬 초소마다에서 헌신 분투하고 있는 친애하는 동무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동무들! 당신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세월에 살고 있는가? 나는 아침 저녁 명랑한 얼굴로 직장에 출퇴근 하는 동무들을 볼때나 뜨락또르 우에 앉아서 힘차게 전야로 내달리는 동무들을 볼때마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군 한다. 누구나 다 마음대로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에게나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근심이 없으며 래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밝은 세상, 누구나 다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 청춘과 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세상—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바로 당신들은 이러한 지상 락원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부형들은 조국이 없는 쓰라림 속에 얼마나 원한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것인가? 나라 없는 망국노의 슬픔—세상엔 이보다 더한 슬픔이란 없다. 우리의 부형들은 그때 시절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왜놈들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국어를 빼앗았으며 심지어는 성명까지도 빼앗아 냈다. 놈들은 《동조 동근(同祖 同根)》, 《내선 일체(內鮮 一體)》를 부르짖으면서 조선 사람들을 저희들의 《황국 신민(皇國 臣民)》으로 만들려 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형들이 징용, 징병에 끌려 이국 만리의 《지옥》에서 고역에 시달렸으며 놈들의 대포밥으로 되였던 것인가!

곳곳에 솟은 것은 감옥 문이요, 거리마다 우글거리는 건 헌병들과 경찰 놈들이였다. 그때 시절 우리의 부형들에게는 가혹한 노예의 운명만이 강요되였다.

그러나 오늘 날은 어떠한가? 해방 후 우리 나라 근로 청년들은 당당한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튼튼히 틀어 쥐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권리를 가졌다. 인간이란 말과 청춘이란 말의 참뜻은 우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이 울리고 있다.

젊은 동무들!

그러나 동무들은 이 행복, 이 영광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로 수 많은 우리의 혁명 선렬들이 조국의 해방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아낌 없이 바쳤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항일 유격대원들은 장백의 눈보라와 백두의 밀림에서 온갖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용감히 일제 원쑤놈들을 족쳤다.

오늘도 뜻 깊은 해방 열다섯 돐의 명절을 맞으며 새삼스러히 떠오르는 가지가지의 추억들—밀림 속의 우둥'불, 눈보라 속의 행군, 휴식 없이 보내던 준엄한 전투의 나날들이 생각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조국을 찾자는 한 가지 큰 마음을 안고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 선렬들의 친근한 모습이 눈 앞에 안겨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다. 그들은 참으로 혁명의 리익과 미래의 행복 앞에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싸운 투사들이였다.

혁명이 무기를 목마르게 요구하였을 때 그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목숨과 무기를 바꾸리라!》고 웨치면서 적의 무장을 탈취하여 적을 쳤고 유격 근거지에 몰려오는 원쑤의 무리를 맞받아 나아가며 원쑤들의 머리 우에 죽음의 불벼락을 끼얹으면서도 그들은 《동무들! 우리의 영광스러운 근거지를 넓히자! 행복의 날을 안고 조국으로 가자!》고 소리 높이 웨쳤다. 투사들은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조국의 래일, 해방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면서 혁명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다. 심지어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들은 《공산당 만세!》 《조선 독립 만세!》 《혁명 승리 만세!》를 소리 높이 불렀으며 만면에 웃음을 떠우면서 숭고한 최후를 마쳤다.

사람의 삶에는 한정이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는 관계 없이 사람마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어 슬기로운 감정을 불러 이르키는 그런 삶이 있다.

동지들!

생각할 수록 격분에 치떨리는 일이지만 나의 아버지도 반일회원으로 있다가 왜놈들의 총탄에 쓸어 졌었다. 아버지는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부축하는 나에게 말하였다.

《내 원쑤를 갚으려거든 당장 산에 올라라! 어서!》

나의 큰 형님도 유격대에서 싸우다 전사하였고 둘째 형님도 이 길에서 전사하였다. 나도 오로지 이 길에서 충직하리라 마음 다졌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혁명 선렬들로 하여금 이토록 용감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가?

그것은 오직 원쑤와 싸워야 한다. 싸워 이겨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가져 와야 한다. 그리하여 후대들의 앞길에 행복의 꽃이 피게 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과 그에 대한 믿음이였다.

당시 김 일성 원수께서는 자주 우둥'불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산 좋고 물 맑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예로부터 이름이 높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는 왜놈들에게 강점되여 조선 사람은 노예 살이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산에서 고생을 하며 싸우는 것은 우리 조국 강산을 도로 찾고 거기에 부강한 나라를 꾸미기 위하여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없는 것이 없다. 산에는 과실이 많고 바다에는 고기가 많다. 논에서는 벼가 잘 된다. 일본 놈

들을 내쫓고 독립을 하면 로동자, 농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일 삼시 이밥을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조국에 가면 경치 좋은 곳은 다 가 볼 수 있다. 조선은 어디나 공원이다. 기차도 조선 사람이 몰구 공원도 조선 사람이 관리할 것이다. 조선은 꽃나라로 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이께서 가르치신 이런 사상으로 하여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고 결의를 다졌다.

젊은 동무들!

동지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행복이야 말로 우리의 혁명 선렬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행복을 소중히 함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력사의 뿌리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 로동당 시대, 김 일성 시대에 사는 보람을 간직하고 태산보다도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우리 당의 은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청춘의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답게 항상 당 정책을 무조건 지지 옹호하고 관철하는 모범적 역'군이 되며 장구한 혁명 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보위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이 세계 최강을 호언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전쟁의 페허 우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할 수 있은 것은 누구때문이며 또 오늘보다 더 휘황한 래일을 약속받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세계 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 나라가 어떻게 동방에 태양처럼 솟은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되였는가! 이는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조선 로동당—이는 조선 혁명의 참모부이며 심장이다. 당에 대한 충직성은 곧 혁명에 대한 충직성을 말한다.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당을 따르며 당의 품에 안겨 당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다.

동무들!

당신들의 어깨에는 실로 중대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 한시바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모두다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의 앞장에 서며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그 누구나를 막론하고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물론 우리의 앞길에는 중첩되는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혁명가적 기질을 가지고 그를 이악하게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우리 시대가 부과한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영예롭게 완수하여야 한다.

60년대의 조국이 당신들을 위훈에로 부른다. 모두다 씩씩한 기백, 흘러 넘치는 정열을 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자!

금년도 완충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자!

공산주의 노을이 붉게 빛나는 조국의 래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래는 청년들의 것이다.

어머니—조국에 영광 드리자!



8. 15 해방 열 다섯 돐의 아침이 왔다. 찬란한 아침 해'발 속에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 거연하게 드러난다. 수림 같은 공장 굴뚝들이며, 푸른 물'결 파도치는 무연한 전야, 고기'배 달리는 바다와 백두산 기슭의 두메 산'골—그 어디로 가나 삶의 노래 드높다.

명절 차림의 천만 인민이 손에손에 수기와 꽃 묶음을 들고 심장으로부터 우리의 당과 경애하는 수령께 영광을 드리며 위대한 쏘련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만약 우리에게 쏘련 군대에 의한 해방이 없었고 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행복, 오늘의 영광을 노래부를 수 있으랴!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왜적들과 싸우면서 번영하는 조국의 오늘에 대하여 이미 구상하시였다.

이 위대한 구상은 해방 후 조국의 현실에서 훌륭히 실현되였다. 세계 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무적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영웅 조선으로 불리우게 되였고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부터 강력한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은 해방 전 1944년의 6.6 배로 장성하였으며 알곡 총 수확고에서는 1958년에 이미 해방 전의 약 2 배에 도달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해방된 조국의 품에서 청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승리와 영광의 15년! 당의 따뜻한 해'빛 아래 수령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생활은 비할바 없이 전변되였다.

젊은 대의원

지금으로부터 20 여년 전 한 광산 로동자의 집에서는 림종을 앞둔 어머니가 세 살잡이 어린 아들을 앞에 두고 신음하고 있었다. 해'별조차 깃들지 않는 캄캄한 방안, 이불을 대신하는 누더기 옷들, 삳자리 대신 깔아 놓은 가마니… 어머니의 머리 맡에는 약그릇 하나 없고 어린 것은 배 곯아 쥐여짜는 듯 울고 있었다. 어린애는 아침에 한 술 되나마나한 대두박 죽물을 먹었을 뿐이였다. 어린애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림종의 괴로움도 잊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돌아 왔으나 그 역시 이 밑창난 빈궁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어 세상을 원망하면서 한숨만 쉬였다.

드디여 어머니는 원한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날부터 아버지는 더욱 더 침울해졌다. 첫새벽에 일어나 밥을 짛어 먹고 온종일 일하다가는 밤'중에 돌아와 손수 끼니를 굶이군 하였다.

그후 아버지는 수풍 발전소 땜 건설장으로 가서 품팔이 로동을 하였다.

생활은 날로 빈궁해만졌다. 어린 것은 겨우 엷집으로나 놀려 다닐 6~7세 때부터 남의 집 어린애 보아 주는 일을 했다. 열 살 안팎 무렵부터는 공장 식당의 화부 노릇을 했다. 숱한 매를 맞으며 그는 자랐다.

얼마 후 오랜 고역에서 얻은 병으로 하여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소년은 의지가지 할 길 없는 천애고아로 되였다. 만일 해방된 조국이 아니였던들 그는 어느 골목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국은 그에게 신생의 봄을 안겨 주었다. 그는 고마운 주권 밑에서 무럭무럭 커 갔다. 그는 해방 후 처음으로 글을 배웠고 1949년 공장에 들어 간 후 야간 기계 전문 학교 예비반을 졸업하였다.

그는 차츰 고급 기능공으로 되였으며



어엿한 민청원으로 민청 단체의 교양을 받았다. 그후 민청에서 자란 그는 영예로운 조선 로동당원이 되였으며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생산 혁신자로서의 명성은 온 나라 안에 퍼졌다.

이렇듯 빠른 발전이 또 어디 있으랴! 실로 주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된 제도 하에서만이 모든 사람들의 개성도 청춘의 재능도 백화 란만히 꽃피는 것이다. 행복도 꽃피고 청춘도 꽃핀다.

그의 나이는 금년에 스물 다섯 살이다.

금년에 열린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7차 회의에서 이 청년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대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1960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게 되였습니다. 한갖 로동 청년으로써 이 이상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데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룡성 기계 공장의 이름 난 천리마 작업반장 주 성일 동무이며 우리 나라 기계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8메터 타닝반 제작자의 한 사람이며 현재는 3,000 톤 프레스 제작에서 2,000%의 철삭 속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온 장내가 그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낸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장내를 울렸다.

생각해 보라! 우리 나라 반만년 력사에서 그 어느 때 근로하는 청년들이 이렇듯 높은 연단에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로히 토로하며 국가 정사에 참여한 일이 있었는가! 언제 이렇듯 높은 권리를 향유 받은 일이 있었는가!

과거 수천년 동안이나 우리 청년들은 정치와 사회 생활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스물 다섯 살의 평범한 청년인 주 성일 동무는 저렇듯 높은 연단에서 국가 대사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 성일 동무 혼자만의 경우는 아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에는 최고 인민 회의로부터 지방 주권 기관에 이르기까지 도합 1만 700 여 명의 청년들이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18 세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 받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나라의 청년 학생들은 세계 민청, 국제 학생 동맹의 일원으로 되고 있으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영예와 자유, 권리는 오로지 조선 로동당 시대, 우리 제도 하에서만이 받을 수 있다.

조국이여! 그대는 우리들— 청년들에게 값 높은 삶을 안겨 주었다.

꽃피는 락원

해방 전 우리 청년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암담하였다.

억울하기 그지 없었던 우리 부형들의 청춘 시절을 돌이켜 보자! 그들은 일할래야 일'자리가 없었고 농사 짛을래야 땅이 없었다. 암담한 생활에 허덕이면서 래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날 그날을 하루 살이 식으로 살아 갔었다.

청춘의 생기 발발한 모든 것이 무참히 짓밟혔다. 이제 한두 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공화국 공훈 광부인 박 도화 동무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신창 탄광에 왔을 때 그는 집이 없어 헌 소금 가마니로 막을 치고 살았다.

썩은 대두박을 우려 먹고 하루 열 다섯 시간 이상 로동을 했다. 방바닥에서는 탄몽당이 풀썩풀썩 일고 탄부들은

1945  1960

영광스러운 력사의 페지를 번지며

영원한 악수

—쏘련 군을 맞이하고—

리 정구

싸이렌 소리와 함께
밀려 온 군중
손에 손마다 우리 기를 들고 나온 군중
그 속으로—
솔문과 솔문을 지나 들어 온 트럭 한대
아아 반가운 쏘련군의 트럭이다.
어서 트럭에서 내려라
양 여가리에 선 사람들이
기'발을 흔들어 만세소리 높이 부르는데
《따와리씨—》
너는 무조건하고
내 손과 내 몸을 걷잡아 흔드누나
오, 오래'동안 그리워하던 동무여
우리들은 네가 오기를
무한히 기다렸다
………

열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열 여덟 살이라는 나이를 가르쳐 주는—
사랑스러운 꼽소몰
레닌, 쓰딸린, 고리끼 등의
위대한 선배들의 이름만 외워도 반갑다고
련송 손목을 잡아 흔들어 주는
오 사랑스러운 공산 청년이여!
민족 해방이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우리들은 너와 굳게 손을 잡는다
전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사회주의 국가
그 속에서 자라난 너와
일본 제국주의의 살인적인 구속
그 속에서 해방된 나와
너와 나는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는 까닭에
영원한 악수를 한다

1945. 9.

한달이고 두달이고 목욕 한 번 못했다. 언제나 막장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잘 때는 거적떼기를 뒤집어 쓰고 잤다. 썩은 동발이 무너지고 가스나 폭발될 때면 수십명씩 한 번에 무리 죽음을 당했다. 실로 인간의 생명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했다. 한 번은 박 도화 동무도 락반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놈들은 그에게 임금조차 주지 않았고 일자리에서 쫓아 냈다. 병원에서는 돈 없는 그에게 손 댈념도 하지 않았으며 식구들은 굶주렸다. 밥대신 눈물을 삼키며 살아 온 그들— 이것이 해방 전 우리 조선 로동자들의 신세였었다.

그러나 해방은 그들의 비참한 생활에도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공장 광산의 주인으로 되였다. 임금은 날로 높아 가고 물가는 전후에만도 벌써 7차나 인하되였다. 옛날엔 빈궁과 실업을 낳고 인간을 불구로 만들던 기계가 지금은 모든 어려운 일을 대신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로동 청년들은 로동의 권리만 아니라 휴식의 권리도 완전히 보장 받고 있다. 매개 청년들은 해마다 유급 휴가를 받고 있으며 녀성들은 70 여 일 간의 산전 산후 휴가를 받고 있다. 직장 정양소와 료양소는 물론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동서해안의 명승지들에는 수십 개의 휴양소, 료양소들이 있어 지난해만 하여도 33만 2천 여 명의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정, 휴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 보험 혜택으로 각종 일시적 보조금과 년금까지 받고 있다.

로동이 즐겁고 영웅적인 일로 되고 있는 나라—이것이 위대한 우리 제도의 산물이다.

농민 청년들의 처지, 역시 전변되였다.

열두 삼천리'벌을 우리의 피로 적시고
열두 삼천리'벌을 우리의 눈물로 적
시네…

이것은 그 옛날 열두 삼천리'벌 농민들이 부르든 구슬픈 노래다.

이 고장의 오 리정 농민은 그의 청년 시절 무연한 갈밭을 모지라진 호미와 괭이로 뚜지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배곯아 쓰러졌다. 게다가 겨우 심어 놓은 곡식들은 움트자마자 메마른 땅우에서 말라 버리군 하였다. 등'짐으로 물을 날라다 부었으나 어찌 그런 방법으로 메마른 땅을 적실 수 있으랴! 고랑마다 열두 번씩 타고 넘으며 겨우 티운 싹도 이번엔 7, 8월 장마가 쓸어 가군 하였다.

《하느님도 무심하고 땅도 야속하다.》

그는 원한에 찬 땅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참말이지 그때 세월 우리의 농민들이 그 얼마나 정든 고향을 등지고 거칠은 이역땅으로 류랑의 길을 떠났던 것인가?

그러나 해방은 이곳 열두 삼천리 사람들의 생활에도 전변을 일으켰다. 당은 이 고장 사람들의 력대의 소원을 풀어 주어 평남 관개 공사를 완공하였다. 오늘 조선 로동당이 보내 준 물은 3,000리 수로를 따라 열두 삼천리'벌을 적시면서 해마다 이벌에 만풍년을 실어 오고 있다. 이곳 열두 삼천리 농업 협동 조합원들만 하여도 1년 동안에 7년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짖었다. 오 리정 농민도 지금은 옷장, 재봉침 등 수 많은 가구들을 장만하고 살고 있다. 그들의 생활은 모두가 중농 이상이 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는 지금 8,000 여대의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이 일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농촌에 전기가 들어 갔다.

생활이 행복 할수록 사람들의 건강 역시 좋아진다. 사람들의 사망률은 해방 전에 비하여 58%나 감소되였으며 수명은 15년이나 연장되였다. 그러기에 지금은 60이 환갑이 아니라 90이 환갑이라 한다. 리마다 진료소가 있어 무의촌이 없으며 그 누구나 병이 생기면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 참말로 우리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가! 그러나 오늘보다 래일은 더 좋을 것이다.

4:1

해방 후 우리 시대에 새로 자라난 젊은 공학사 신 기천 동무는 자기의 지난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8. 15 해방 전까지 나는 흥남 비료 공장 변전소 건설 공사장에서 전기 로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겐들 어찌 배움의 욕망이 없었으련만 그때 세월에 우리 로동자들은 학교에 갈념이나 했겠습니까!

해방 후 우리 조국이 나를 무지와 몽매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직장 민청의 추천으로 나는 새로 조직된 흥남 기술 전문 학교에 다니게 되였으며 몇해 후 당은 나를 다시 김 일성 종합 대학 공학부에 보내 주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충분한 학습 조건, 생활 조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마음껏 공부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 곧 쏘련 류학으로 가게 되였으며 레닌그라드 전기 대학 연구생으로서 학습하였습니다. 4년 간의 류학 생활을 끝마치고 귀국하는 날 평양역에 마중 나온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였구나! 이 은공을 수상님께 어떻게 다 갚는단 말이

1945  1960

영광스러운 력사의 페지를 번지며

토지를 분여 받던 날

…토지 분여를 하던 날은 벌말 안팎 동네가 벅적 끄아댔다. 그것은 전고에 없던 력사적 사실이였기 때문이다…

…땅 한평 없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저 땅이 생기고 그것이 또한 영원한 자기의 소유로 되였으니 이야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그래 그들은 분여가 끝난 후에 너무도 감격해서 제가끔 그 땅들을 가 보았다. 물론 가 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 근처의 농토를 훤하게 알 수 있다. 허나 그전에는 남의 땅으로만 무관심하게 알았던 것이 인제는 내 소유가 되였다는데, 누구나 한 번 다시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였다.

곽 바위는 주인집의 그 땅을 1년에도 몇 번씩 갈아 주었다. 그러나 전에는 심드렁하던 그 땅이 마치 은금 보화처럼 돋보임은 웬 일인가?… 그는 흙을 한 옹큼 집어서 두 손에다 넣고 비벼 보았다. 모래가 섞이지 않은 황토는 마치 떡가루처럼 곱게 망거진다. 사실 이 땅을 올해에 잘 다루면 곡식이 깨 쏟아지듯 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춤이라도 추고 싶다. 한동안 그는 밭을 응시하고 있었다. 밭에서는 금방 모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강냉이가 우거지고 감자 꽃이 만발하고 콩은 꼬투리가 다래다래 영글었다. 수수는 모개미가 척척 늘어졌다… 바람이 불적마다 곡식들은 와삭와삭 너울거리며 춤을 춘다.

리 기영의《땅》에서



냐!〉참말이지 우리 제도 아니고서야 나같은 게 어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이것은 신 기천 동무 혼자의 실례가 아니다.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보통 현상으로 되고 있다.

해방전 5 개의 소학교 밖에 없던 영홍군 내에 지금은 전문 학교, 고급 중학교를 비롯하여 88 개의 학교가 있으며 군내 인구의 4분지 1 이상이 이 학교들에서 배우고 있다. 게다가 성인 교육망, 통신 교육망까지 합치면 실로 온 군내가 거이 학생들인 셈이다.

옛날에 1 개의 대학도 없던 공화국 북반부에 지금은 37 개의 대학이 있으며 각급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학생수는 250 여 만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4 배 1이다.

옛날엔 수 많은 근로자들의 자제들이 몇 푼 안되는 《월사금》으로 학교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 났으나 지금은 수업료가 폐지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금액의 장학금까지 받고 있다. 심지어 250만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철 교복까지 일제히 공급받고 있으니 참말이지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커다란 자랑으로 되는 것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중등 의무 교육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기술 의무 교육제도 실시될 것이다.

지금 공화국 청년들의 일반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해방 전엔 230만 여 명의 문맹자들이 있었으나 해방 후 문맹은 퇴치되였으며 34만 여 명의 청년들이 무기능공으로부터 기능공으로 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5만 명의 기사, 기수들이 그들 속에서 배출될 것이다.

비단 교육에서만 아니라 세계 인민들로부터《황금의 예술》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윈나에서 열린 제7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서 17 개의 금메달을 받고 제 2 위를 쟁취한 우리 나라 예술은 얼마나 훌륭하며 세계 륙상계의 혜성과도 같은 신금단 선수를 비롯한 56명의 스포츠 명수를 배출한 체육과 스포츠인들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 나라 찬란한 인민 문화의 발전에 대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한 일본 사람은 《…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탄하였다.

어찌 더 참을 수 있으랴!

서울 거리에서 있은 일이다. 김 모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의 하숙 집에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그러면 이 청년은 왜 자기의 젊은 목숨을 그 스스로가 끊었는가? 그것은 그의 옆에 놓여 있는 한장의 유서가 잘 말해 주고 있였다.

《나는 살고 싶었다.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고 보다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은 청춘의 꿈이 간직되여 있었다. 그러나 이 저주로운 사회가 나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의 유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몇해 전 고학을 목적으로 서울에 올라 온 청년이였다. 그러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신문 배달, 구두 수리, 인력거 몰이… 별별 일을 다하였으나 그런 것으론 공부는 고사하고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혈액 은행에 드나들면서 자기의 피를 뽑아 팔았다. 그의 몸은 점점 파리해 갔다. 어떤 때는 모진 빈혈증으로 길'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안과 병원에 가서 눈까지 팔려고 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젊음을 버리고 죽음을 택하게 되기까지 그의 고생이 오죽했으랴! 그는 참고 견디다 못하여 암담한 사회를 저주하면서 자살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김 모 한 사람의 비극이겠는가? 2천 7백환의 공납금을 물지 못해 음독 자살한 명남 상업 고등 학교 류 명일의 경우나 온 가족이 류랑 걸식의 길을 떠난 충청북도 박 모의 경우를 막론하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생활은 그 어느 것이나를 막론하고 비참하기 그지 없다.

오늘 남조선의 공업은 여지 없이 파괴되였으며 알곡 생산고는 일제 시기의 70%로 감소되였다. 660 여 만의 실업자와 반실업자, 300만을 넘는 절량 농민들, 생활고에 울고 있는 전쟁 과부들과 고아들… 이것이 오늘날의 남조선 현실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와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이렇게

1945 1960

영광스러운 력사의 페지를 번지며

심장의 노래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원쑤들은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삼켜 버리려고 발광했다. 그러나 황금 시대의 행복을 맛본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영웅적으로 싸워 미제 침략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했다. 조국의 력사는 우리 청년들이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우리의 제도를 피로써 지킨 영웅적 이야기를 영원히 자랑할 것이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리 수복 영웅 수첩》에서

☆ ☆

《나의 팔다리는 부서졌다.

그러나 네놈들에 대한 복쑤심은 오히려 더 강하여졌다.

조선 로동당원의 꺾을 수 없는 투지와 당과 수령을 위하여 굳게 다진 불굴의 의지를 보여 주리라!》

—강 호영 영웅의 유언—

도 비참한가? 그것은 조선 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해방 후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인 평화적 조국 통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강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략 전쟁조차 서슴치 않았다. 전후에만도 우리 당과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에 대한 방안을 여러 번 제기하였으나 미제와 그의 괴뢰 도당은 이를 번번히 거부해 나섰다. 심지어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서신 거래조차 거부 해 나섰다.

그리하여 소리치면 대답할 지척에 살면서도 사랑하는 부모, 처자, 친척, 친우들이 15년의 긴긴 세월 서로 안부조차 모르고 있다.

한 피'줄을 이여 받은 한 나라 한 민족으로써 이 이상 어찌 더 분렬의 비극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인가? 미제가 남조선 땅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이 민족적 불행은 결코 가셔질 수 없다.

현재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재난과 불행의 화근은 다름 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더는 참을 수 없어 분연히 궐기하였다. 그들은 새 생활, 새 정치, 새 사회를 요구하여 일떠 섰다. 만고 역적 리 승만을 쫓아 냈으며 미제의 야만적 통치 제도를 밑뿌리로부터 흔들어 놓았다. 또한 이것은 그 어떤 침략 세력도 반동의 무리들도 인민의 힘 앞에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증하였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그들의 정당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리라!

사회주의 조국—이는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이며 자유와 영예의 기치이다.

그러나 청년들이여! 오늘의 행복과 영예에 대하여 생각할 때 결코 우리는 그의 뿌리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

수령께서는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우리들에게 오늘과 같은 행복한 날을 안겨 주기 위하여 그렇듯 기나긴 세월을 항일 무장 투쟁의 선두에서 싸우셨다. 항일 유격대원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로 우리들은 오늘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태양의 별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꽃을 피우듯이 해방 후 당과 수령은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보람을 안겨 주었으며 영광의 길을 열어 주었다. 실로 우리가 걸어 온 지난 15년 간의 영광스러운 전투적 로정과 오늘날의 위대한 승리를 어찌 김 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인들 할 수 있으랴! 우리는 당과 수령이 주신 이 행복, 이 귀중한 제도를 반드시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청년들은 탄우 비'발치는 락동강과 불타는 고지에서 뜨거운 청춘의 피를 뿌리며 목숨으로 이 제도를 수호하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보람찬 나날에도 우리 청년들은 이 제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땀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들은 당의 부름을 따라 해주—하성간 철도 부설 공사장으로, 평남 청년 탄전으로,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으로 달려 갔으며 항상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섰다. 그들은 지금 천리마를 타고 공장과 농촌, 이르는 곳마다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 미제는 또다시 우리들의 모든 성과, 혁명적 전취물을 빼앗으려고 발광하고 있다. 놈들은 우리의 앞길에 전쟁의 폭약을 다시 파묻으려 하고 있다. 미제의 살인 두목 아이젠하워가 바로 얼마전 남조선에 기여 들어 그것을 흉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반동의 무리들은 항쟁에 일떠 선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원쑤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결코 발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는 없지 않는가!

청년들이여! 경각성을 높이자! 피로써 얻은 사회주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키자! 그리고 남녘 땅에서 원쑤를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자!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완충기 과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해 쌍두 천리마를 타고 용진용진 앞으로 나가자!

☆

☆ ☆

1945  1960

영광스러운 력사의 페지를 번지며

피로써 지킨 땅을 로력으로 꽃피우자!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3년간의 전쟁의 재난을 몸으로 막아 침략자들을 굴복시켰다.

승리한 조국은 창조적 건설의 새 길에 들어섰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는 전쟁으로 인하여 무참히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과 청년들을 불렀다. 청년들은 《모든 것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로》라는 당의 새로운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떨쳐 일어 섰다.

모든 것이 파괴되였다. 우리 방직 공장도 황량한 재'더미로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재'더미를 헤치고 단시일내에 보다 웅장한 공장을 복구하고 인민들에게 좋은 옷감을 보내 주리라.

제철소와 제강소,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촌 그 어데서나 로동당원들과 우리 민청원들이 있거니 우리는 폐허를 박차고 일어 서리라!

전쟁 기간에 우리는 피로써 조국을 사수하였다. 오늘은 전쟁으로 인하여 입은 우리 조국의 상처를 우리의 영예로운 로력으로 회복하고야 말 것이다.

피로써 지킨 땅을 로력으로 꽃피우리라!

1953. 로력 영웅 주 병선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

김 성 국

1938년 겨울—

김 일성 원수께서 친솔하신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가 국경 일대와 국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몽강에서부터 장백 지구로 고난에 찬 행군을 계속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지상과 공중으로부터의 적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공격과 추격을 물리치면서 부대가 한달 동안이나 행군을 계속하였을 때는 이미 식량 사정이 매우 곤난해졌고 일부 대원들과 지휘관들도 련속되는 가렬한 전투의 피곤으로 병석에 눕게 되였다.

이때 나는 장기간 고열에 시달린 뒤인 데다가 두 곳이나 부상을 당하여 지휘관으로부터 후방 밀영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고집을 써가며 부대를 따라 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어느 날 김 일성 원수께서는 나를 부르시였다.

당시 《최아바이》라는 별호로 불리우던 중대장으로부터 사령관 동지께서 부르신다는 전달을 받은 나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혹시 나를 후방 밀영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닐가…》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으로 내가 사령부 천막 안에 들어 서니 원수께서는 반가이 나의 손을 잡아 주시면서 가까이 이끌어 앉히셨다. 그리고 식사를 하라고 권하시였다.

나는 이미 식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으나 원수께서는 웃으시면서 《…물론 먹었겠지, 그러나 배가 덜찼을 거야, 사양 말고 어서 더 먹으라구》하고 숟가락을 쥐여 주시는 것이였다.

《…성국이가 제 집에 있었더라면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해도 앓고난 뒤에는 산채국이라도 입에 맞게 끓여 먹었을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다르구만, 우리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참아야지》하고 나의 어깨를 잡으시며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 보셨다. 《그렇게 건강하던 성국이가 이렇게 축이 가다니…모두다 악독한 왜놈들 때문이야…》

혼자 말씀을 하시듯 이렇게 뇌이시면서 부드러운 손'길로 나의 머리를 쓸어 주시는 그이 앞에서 나는 그만 목이 메여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이께서는 나에게 거듭 식사를 권하시였다.

그 때는 원수께서도 병중에 계시던 때이며 더우기 식량이 곤난한 때라 식사 조차 제대로 대접 못하는 줄을 나도 잘 알고 있였다. 그리다가 지금 모처럼 구해 온 쌀로 그이를 위해 준비한 식사를 내가 어떻게 더 먹을 수 있으랴!…

더운 김이 피여 오르는 죽그릇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앉았던 나는 머뭇머뭇 자리에서 일어 섰다.

그러자 원수께서는 내 손을 다시 잡아 앉히 셨다.

《…좋은 것은 못 해 주지만 죽이라도 나누어 먹고 어서 몸을 춰세워야지, 그래야 또 왜놈들을 잡고 혁명을 할게 아닌가! 성국이는 쓸데 없이 고집이 세구만…》

그이께서는 마침내 나무람을 하셨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지난날 김 일 동지가 고열에 시달린 나를 업고 림강에서부터 어려운 행군을 하다가 몇 번씩 지쳐 쓰러졌으나 끝내 업고 다니며 병을 치료해 주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장백현 가재수에서 내가 유격대에 입대한 초기의 일이다.

당시 열 여덟 살이던 나는 김 일 동지의 지휘하에 림강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김 일성 원수가 계신 사령부를 찾아 가고 있었다.

그 때 나는 아직 나이도 어렸지만 빨찌산 투쟁에 단련이 부족한 때인 데다가 굶주림과 불순한 기후의 악조건을 뚫고 전투와 행군을 계속하다나니 그만 심한 고열에 시달리게 되였다.

이 때 나는 내 자신의 고통보다도 지휘관들이 알면 어쩌랴 하는 근심이 앞섰다.

지휘관들이 알게 되면 어느 지점에 떨궈 놓고 치료를 하라고 할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그러다가 대오에서 떨어져 버리게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였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고통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행군을 계속했다. 그럴수록 몸은 불화로 같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자꾸만 어질거려서 자주 걸음을 헛딛기도 했다.

나의 이러한 생각과 노력은 헛된 것이였다.

당시 우리 구분대장이던 김 일 동지는 어느 사이엔가 나의 기색을 알아 차리고 인차 자기 등에 나를 이끌어 업고는 행군 대렬에 서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이 때 참으로 내 몸 둘 곳을 몰랐다.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요, 또는 하루 이틀의 행군도 아닌데… 어떻게 수천리 험한 산'길을 적들과 싸우면서 나를 업고 걸어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차라리 내가 대오에서 떨어지기 보다도 더 괴로운 일이였다.

내 한 몸이 희생되더라도 지휘관에게 짐이 되게 할 수는 없으며 나 하나 때문에 급한 행군'길을 지체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몇번인가 애원하듯 김 일 동지에게 내려 놔 달라고 졸랐다.

김 일 동지는 이럴 때마다 두 팔에 더 힘을 주어 추켜 업으면서 천천히 나를 타일렀다.

《…급한 때에 돕는 것은 동지간의 의리가 아닌가! 항차 지휘관인 내가 어떻게 자기 대원을 인적이 없는 산 속에다 혼자 두겠는가… 이제 사령부에 가면 곧 고칠 수 있으니… 괴롭더라도 참고 견디라구…》

그후 나는 점점 심한 고열에 빠져서 자주 정신을 잃을 정도였으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 일 동지가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오며 어떤 고생과 위험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줬는지 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김 일성 원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그 때 일을 새삼스럽게 돌이키면서 지휘관들에 대한 그지 없는 존경심을 금할 수 없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김 일성 원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 그래 성국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휘관들의 이러한 성의나 의리를 생각해서도 몸을 어서 회복하고 혁명을 해야 할게 아닌가!…》

김 일성 원수께서는 명령하다 싶이 나에게 식사를 권하시였다.

더는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손에 든



나는 감격에 겨워 더운 눈물이 자꾸만 두 뺨을 적셔 흐르고 목이 메여 올랐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낳고 길러 준 부모의 사랑을 산 같이 높고 바다 같이 깊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를 길러 주고 혁명 승리에로 이끌어 준 김 일성 원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어떠한 말로 그것을 표현해야 좋을지 모른다.

자신은 굶으시면서도 부하들에게는 먹을 것을 권하시고, 추운 때에는 자기 덧옷을 벗어서 잠든 대원의 등을 덮어도 주시며 어떤 고통도 위험도 부하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열렬한 혁명 투사로 키워 주신 그이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참으로 이런 사랑을 그 어떤 산이나 바다에다 비할 수 있겠는가. 그이의 일상적인 간곡한 교시와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모범에 의하여 항일 빨찌산의 동지 호상간에 이룩된 이렇듯 깊은 신뢰와 존경과 사랑의 정신은 그대로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고 있는 중요한 힘의 원천의 하나임을 생각할 때 크나큰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생활의 거울

두 민청원

강원도 지질 탐사단 법동 조사반 청년들은 평균 해발 900 메터의 준령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도 탐사 임무를 맡은 두 청년이 높은 령을 넘고 있었다.

그들은 학습도 잘하거니와 당이 맡겨준 과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수행하고야 마는 동무들이 였다. 가파른 령길을 오르던 신영하.김 승두 동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두 로인을 만났다. 두 동무는 선뜩 딸아 서서 로인들의 짐을 자기들이 지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두 로인은 청년들 자신이 30키로가 넘는 짐을 지고 있는 걸 보고 굳이 사양하였다.

거이 빼앗다 싶이하여 두 청년은 그 로인의 짐을 덧지고 20리 길을 걸었다. 목적지까지 왔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박 젖었다. 짐을 내려 놓고 땀을 씻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리고 있었다.

이 두 청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인민군 후방 가족을 도와 매일 작업을 끝마치고 나무를 해다 준 일, 자기가 류숙하고 있는 마을을 깨끗이 청소해 주어 온동리가 그의 모범을 따라 위생 문화적인 마을로 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하며 그의 참된 계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원 송 도섭

그이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박 양 엽

장입기 운전대에 앉아 제어기를 틀어 쥔 엄 기준은 로 상태를 바라보았다.

엉거주춤해서 로 안을 뚫어지게 살펴보던 천리마 청년 작업반장 오 구택은 빙그레 웃으며 번쩍 왼 손을 쳐들었다.

장입을 시작하라는 신호다. 평로 운전실에 매 달린 종이 땡땡 울리고 로문이 열린다. 그러자 이글거리는 화염이 세차게 내 뿜는다.

긴장해진 엄 기준은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운전대를 잡아 돌렸다.

그러자 마치 큰 집 한 칸을 떼여 천정에 매달은 것 같은 장입기는 으르렁거리며 제 자리를 뜬다. 장입기는 작업장을 휘돌아가며 파철이 담긴 장입 바가지를 물어서는 이글거리는 로 속에 쏟아 넣는다.

이 시간은 용해공들에게 있어서는 쉬는 때이기도 하나 장입기 운전공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장되여 일해야 하는 시간이다.

제강 시간 단축 여하가 이 운전공에게 적지 않게 달려 있는 것이다.

제강 시간 단축 문제를 내놓고 민청 분조 회의가 열릴라치면 의례히 비판의 화살은 운전공들에게 돌려졌다.

그러나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불과 한 달 전에 조립해 놓은 이 장입기는 기존의 장입기와는 그 구조며 운전 조작법이 달라서 다루기가 여간 말째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장입기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보다 선진적이면서도 자동식이여서 그에 숙달되기에는 시일이 확실히 걸려야만 했다. 평로 작업장에 비해 장입기 통체가 커서 애를 먹었는데 조금만 잘못 운전하면 로 문턱을 허물어 놓고 기둥을 받고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 누구도 대뜸 이 장입기를 맡으려고 대 들지 않았다.

사실 엄 기준은 처음 이 기대를 맡았을 때 된 욕도 숱해 먹었다.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적어도 1년 이상은 《굼벵이》 운전공을 면할 수 없다고 타산했다. 그러나 엄 기준은 불과 두 달 만에 능수가 되였다.

이날도 그는 사천에 오 구택 작업반장과 장입을 두 시간 이내에 끝낼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처럼 빨리 엄 기준 동무가 능수가 되였는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작년 9월 초였다.

황해 제철소에 현지 지도를 오셨던 수상 동지는 평로 작업장에도 들리시였다. 수상 동지는 많은 용해공들과 담화하셨다. 일하기가 어떠한가, 무엇이 애로인가, 생활은 어떠한가, 처도 직장에 다니는가 등 샅샅히 물으시던 수상 동지는 장입기가 다루기 말째서 장입 시간이 되게 걸린다는 것을 알으셨다.

수상 동지는 장입기 운전공 엄 기준을 부르셨다. 그리고 장입기의 상태에 대하여 친히 다 들으시고 난 수상 동지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래 언제까지면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겠소.》

수상 동지의 물음을 받은 엄 기준의 머리에는 그전부터 말해 오던 《1년》이라는 그것이 떠 올랐다. 그러나 순간 그는 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인가고 자기를 책망했다.

《수상 동지! 석 달 안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하고 그는 군대식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겠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힘 있게 대답하였다.

《좋소! 아주 훌륭하오. 우리 조선 청년들이 못할 일이란 없소!》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상 동지 앞에 드린 맹세를 이를 악물고라도 실천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수상 동지는 그의 어깨를 정겹게 두다려 주시면서 만족해서 웃으셨다.

순간 엄 기준은 울컥 목메여 오르는 감격을 금할 수 없었다.

수상 동지 앞에서 직접 과업을 받은 이 영광과 긍지로 하여 그의 가슴은 높이 뛰였다.

김 일성 원수—그 이름만 불러도 어버이 품에 안긴 것 같이 친애롭고 다함없이 믿어운 분, 바로 이 분의 품 속에서 청춘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날 민청 위원장은 엄 기준을 찾았다.

—기준 동무는 오늘의 영광을 평생 잊지 못하겠군요.

—정말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기준 동무! 전쟁 기간 원쑤놈들에게 량 부모를 빼앗긴 동무이지만 동무는 외롭지 않소. 그이의 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소?

—사실 그렇습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누이 동생을 다리고 길을 떠날땐 좀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당과 정부와 김 일성 원수의 어버이다운 보살핌이 없었드라면…

여기까지 말한 기준은 고개를 떨구면서 두 눈의 이슬을 훔치고 있었다.

—기준 동무, 수상 동지 앞에서 다진 맹세를 해 냅시다. 우리 청년들이 언제 한 번 그이 앞에 다진 결의를 못한 적이 있었소?

—위원장 동무, 꼭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날부터 열정이 끓어 올랐다. 민청원들의 기세는 충천했다.

기준은 수상 동지께서 친히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처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강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제강 시간을 단축하는데 장입기 운전공의 역할이 크다고 간곡하게 말씀해 주신 그분, 그분이 친히 나의 어깨를 짚어 주었으며 나의 손을 잡아 주시지 않았던가!

엄 기준은 시설 사업소로 달려 가서 수입 장입기 도면을 빌려 왔다. 이전까지 그는 도면을 볼 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루 바삐 능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중기의 조작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즉시부터 그는 도면을 통해서 그 복잡한 기계 구조와 그의 매개 부문의 작용, 배선 조직 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밤이 깊어서도 도면을 아로 새기기에 노력했다.

하루는 청년들이 모여 앉아 영화 《금강산처녀》를 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옥신 거리다가 옆에 앉은 기준에게 물었다.

《엄 동무는 어떻게 생각해, 처녀 주인공에 대해서 말이야?》

《그럼 제 위치가 달으구말구, 추 상수 아바이 말 마따나 그건 〈공산주의 기중기〉야》하고 왕청같은 대답을 했다.

그때 엄 기준 동무는 장입기 배선 조직을 풀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배선 조직을 풀어 나가던 그는 이 장입기의 설계가들이 로동 보호에 대하여 얼마나 주의를 돌린 것인가를 새삼스레히 느끼고 과연 이 기중기는 추 상수 아바이 말대로 《공산주의 기중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동무들로부터 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다.

동무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기준은 기준이대로 장입기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하 이러다가 이 친구가 정신병에 걸리겠네》하고 누가 익살을 부리는 바람에 그들은 배를 그러쥐고 한바탕 웃은 일까지 있었다.

그는 기대를 하루 바삐 손에 익히우게 하기 위해 운전 련습에 심혈을 기울였다. 평로에서 용해가 진행될 때면 장입기를 평로 작업장에 몰구 나가서는 운전 실습을 했다.

한 번은 기중기 운전을 련습하다 로를 들여다 보고 서 있는 용해공 전 선걸을 받아 넘어 뜨린 적이 있다.

기준은 낯이 빨개서 어쩔 줄을 몰라 멍해 서 있었다. 선걸이가 후닥딱 일어서자 《미안합니다.》하고 기준이가 사죄하였다.

《어, 난 또 누구라구! 일 없네 일없어》 어서 빨리 〈굼벵이〉가 되지 말아 주게》 하고 선걸은 벌쭉 웃으며 고무해 주었다. 때로는 로 문을 받아 마사뜨릴번 하여 가슴이 철렁해 진 일이 있었지만 기억코 해 내고 말겠다고 이악하게 달라 붙었다.

그는 안해가 사온 사과알 여섯 개를 책상 우에 장입기의 제지, 제어기, 위치에 놓고 눈을 감고는 바로 잡아 쥐는 련습도 하였다.

어느 날 전 교대 운전공 리 원명 동무가 밥'중에 기중기를 고장내고 4시간 동안이나 쩔쩔 매고 있었다. 수리공들도 모여 들어 이것 저것 뜯어 놓고 있었지만 고장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기준의 가슴은 설렁 내려 앉았다.

—아니, 이 새 기중기를 고장 내다니

그는 작업복도 가라 입을 념도 없이 그대로 기대에 달라 붙었다.

그는 몇 개의 스위치를 넣어 보다가 인차 주단 링그 아스의 고장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수천 개의 선이 얽힌 배선 조직을 손금처럼 아로새기고 있는 그는 고장의 원인을 스위치 하나로서도 발견한 것이다. 사실 그가 그처럼 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도 효력을 나타 내였다.

장입기가 고장이 나자 장입은 중지되여 용해공들은 발을 동동 굴고 있었던 것이다.

기준은 인차 고장난 곳을 고쳤다. 장입기가 으르릉하며 제 자리를 떠나자 용해공들의 입에선 함박 꽃이 피고 엄지 손'가락을 펴들며 기준을 치하했다.

그때 기준은 또 생각했다. 결코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 그는 자기 교대자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전처럼 고장이 나기만 하면 수리공을 부르는 폐단을 없이 하기 위해서 수리 기공구를 장만하는 한편 못쓰게 된 전기 용접기까지 수리해서 장입기 용으로 가추어 놓았다.

이 토대 우에서 그는 전체 기중기 운전공들에게 《나의 기대 운동》을 호소하여 각자가 자검 자수로서 기대의 사고를 미연 방지하게 하였다. 이 운동은 전 제철소 기중기 운전공들을 불러 일으켰다.

수상 동지 앞에서 맹세한 그때로부터 두 달이 지난 11월 어느 날이였다.

로의 사정에 의하여 장입 시간을 세시간 이내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되였다.

지배인도 현장에 나왔다.

《기준 동무, 방법이 없을가? 만약 방법이 없으면 쇠를 못 녹여도 딴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직장장은 기준의 대답을 기다렸다.

결국 180 톤의 쇠를 더 얻느냐 못 얻느냐가 엄 기준이에게 달리게 되였다.

기준은 깊이 생각하였다.

—180 톤! 그렇다. 나는 이 강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닌가, 물러 설 수는 없다—

그는 더 주저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만약 하다 안 되며 자기 몸으로라도 쇠를 날라 넣을 각오로 그는 힘 있게 대답하였다.

그는 운전대에 뛰여 올랐다.

장입기는 이전에 없던 재빠른 속도로 으르렁 대며 평로 작업장을 빙글빙글 돌며 오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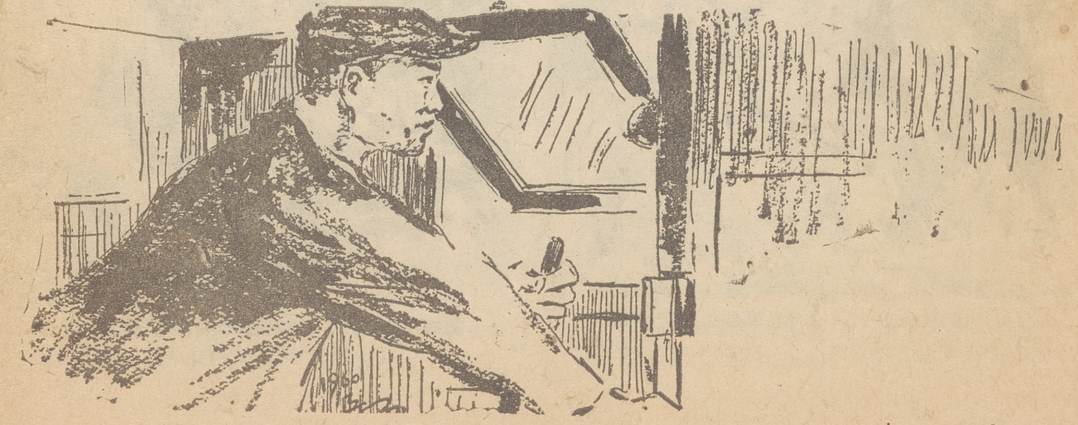
기준의 눈에서는 그대로 불꽃이 튀였다. 그처럼 얌전해만 보이던 기준이의 기상은 그대로 적 화구에 달려드는 용사들을 방불케 했다.

그는 드디어 2시간 5분만에 로 안에 180 톤의 파철, 선철, 광석 등을 잡아 넣었다.

이것으로서 그는 수상 동지 앞에서 한 맹세 보다도 한 달 더 단축하여 훌륭히 자기 맹세를 실천하였다.

이처럼 당과 혁명 앞에 충실하려는 각오가 튼튼히 섰을 때 실로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기적이 솟아 나는 법이다.

이리하여 황철 로동자들로부터 조국은 날마다 1천 톤 가까운 강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불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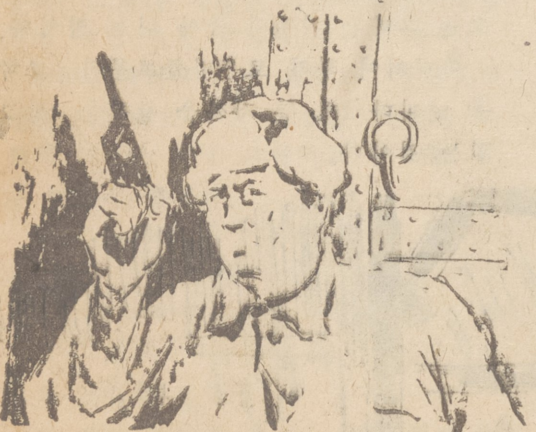
이 영화는 1930년대 김 일성 원수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어떻게 공산주의자답게 원쑤와 싸웠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1936년 압록강반 장백지구로 진출한 항일 빨찌산들은 일제놈들의 소위 〈동기 토벌 작전〉을 격파하면서 도처에서 치렬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 대오 가운데는 리 두성 소대장을 비롯한 열렬한 혁명투사들이 있었다.

전투마다에서 항상 용감하게 싸워온 리 두성 소대장과 그의 전우들인 박 부관 , 김 순옥, 최 소년은 부상을 당한다. 이로하여 그들은 대렬에서 떨어져 밀영지로 후송된다.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여러 병사들은 천연 암굴속의 림시 병원에서 손 의사가 산에서 손수 캐여온 약초를 유일한 약품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마와 기한과의 어려운 싸움을 한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이들이 오직 생각하는 것은 다시 성한 몸이 되여 원쑤를 무찌르는 싸움에 나서는 날이였다. 박 부관은 다시 살아서 혁명에 참가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상처입은 다리를 절단할 것을 결심한다. 그들의 강의한 투지와 불타는 동지애는 우리에게 보다 심각한 감동을 준다. 병원에서 이들은 추악한 혁명의 변절자에 의하여 일제 군경들의 불의의 습격을 받는다. 병원은 불타버린다. 박 부관은 혁명의 전우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적을 유인하면서 절벽에 투신하여 최후를 마친다. 순옥이와 손 의사는 체포되고 리 두성과 최 소년만이 살아 남게 된다. 리 두성은 불의에 일어난 이 사실과 적들에게 체포된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 소년을 부대로 떠나보낸다. 이렇게 되여 리 두성 소대장은 밀림속 초막에 홀로 남게 된다. 그러나 혁명에 대한 충성은 그의 삶에 대한 의욕을 끊을 수 없게 한다. 그의 앞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기한과 상처, 뼈를 어이는 추위와 식량마저 떨어져 의지할 곳 없는 난국이 부닥친다. 그는 혁명을 위하여 살아야만 했다. 이로하여 리 두성은 풀뿌리와 까마귀 고기, 가죽띠까지 끓여 먹으면서 100일이란 긴긴 나날을 설한풍 속에서 싸웠다. 그는 이 엄혹한 나날에도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을 안고 굴함 없이 싸운다. 드디어 기다리던 봉남이와 감격의 상봉을 맞이한다. 리 두성은 다시 혁명 대렬에서 성시 해방 전투에 참가하여 손 의사와 김 순옥, 최 소년을 적들로부터 구출한다.

이렇듯 영화는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로서 그 어떤 복잡하고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공산주의자의 당성을 견결히 고수하며 혁명의 최후 승리를 확신한 항일 빨찌산들의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우리에게 체득케 한다.

우리는 그 이름 길이 빛날 혁명의 불사조, 혁명의 불'길속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일 수도 없는 애국의 새 혁명의 새 불사조를 영원도록 잊지 않을 것이다.



1) 용감한 리 두성 소대장은 부대의 진격로를 열기 위하여 단신으로 적의 토성을 까부신다.



2) 성시 해방 전투에서 부상당한 리 두성 소대장과 녀성대원 김 순옥, 박 부관, 손 의사는 천연 암굴의 밀영지 림시 병원에 후송 된다.



3) 한시 바삐 혁명 대렬에 드러설 것을 각오한 박 부관은 회복될 가망이 없는 자기의 다리를 통조림통으로 만든 톱으로 자른다.



4) 추악한 변절자 고가에 의하여 병원은 습격 당한다. 박 부관은 적들의 추격 속에서 동지를 구원하기 위해 적을 자기에게로 유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절벽에 투신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5) 눈보라 속에 리 두성은 홀로 남았다. 그는 병마와 기한으로하여 지칠대로 지쳤으나 굳세게 병마와 기한을 이겨 나간다.



6) 리 두성은 1937년 11월 7일, 10월 혁명 기념일을 맞이한다. 그는 나무에 〈조선 독립 만세 !〉라는 글을 새긴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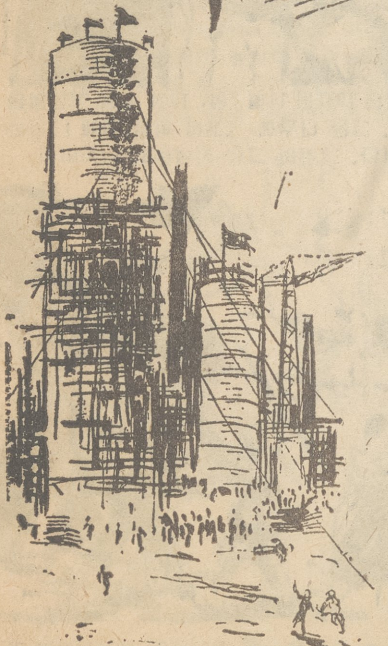


7) 기다리고 기다리던 혁명의 전우 박 봉남이가 찾아 왔다. 두 사람은 힘껏 껴안았다.



8) 리 두성은 성시 해방에 참가하여 체포되였던 혁명의 전우 손 의사, 김 순옥, 최 소년을 구출했다.

영원히 벗들과 함께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발전된 화학 공업의 면모를 보시려거든 공도 흥남을 찾으시라! 가없이 푸른 동해를 끼고 근 20 리를 찾이한 웅대한 공장 지구—숲처럼 일떠선 굴뚝들이며 높낮은 탑들과 산악같이 거연히 솟은 건물들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은 흐뭇해진다.

오늘 이 웅대한 공장 지구로부터는 우리 나라 화학 비료 전체 생산량의 88%를 찾이하는 50여 만 톤의 각종 화학 비료가 쏟아져 나오며 해마다 8만 여 톤의 카바이트가 생산된다.

그 뿐만 아니라 방적 및 팔프 공장들에 공급되는 가성소다며 고무 공장의 귀중한 원료 아세찔렌 브레크, 탄산소다와 겍사홀르란 등 70여 종의 중요한 화학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 자랑스런 공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와 더불어 위대한 쏘련 인민이 베풀어 준 사심 없는 원조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김 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수풍 발전소, 평양 방직 공장, 신마동 쎄멘트 공장, 룡성 육류 가공 공장, 평양 가구 공장 등의 그 어느 곳에 위대한 쏘련 형제들의 살뜰한 원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련만 이곳 흥남 비료 공장에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그런 친선의 이야기가 수 많이 깃들어 있다.

× ×

흥남 비료 공장 질안 직장 건설이 한창 벌어졌을 때였다. 이때 흥남 공업 건설 트레스트의 로동자들은 낮에 밤을 이어 질안 직장의 립산화탑과 흡수탑 건설을 서두르고 있었다. 지상 63 메터의 립산화 탑은 그 우에 올라서면 멀리 동해의 푸른 수평선에 뜬 돛배도 보이며 함흥의 반룡산도 눈 아래 굽어 보인다. 게다가 20 메터의 높이를 가진 8 개의 흡수탑을 건설하는 이 공사는 그야말로 쉬운 공사가 아니였다.

현 희택 청년 작업반원들은 벌써 며칠 째나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일을 다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청년 작업반을《돌격대 중의 돌격대》라고 불렀다. 어느날 밤이였다. 이 밤도 희택이와 그의 청년 작업반원들은 흡수탑 공사에 쓸 스텐 철판의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불꽃이 철판 우에서 튕겼다. 그들의 맞은켠 쪽에서는 쏘련 기술자 첸주라. 벨리. 쥐젠꼬브, 일리첸꼬 동지들이 역시 손에손에 용접봉을 들고 작업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단 조선 로동자들을 기술적으로만 도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름 투성이의 작업복을 입고 직접 일손까지 도와 나섰다.

(얼마나 고마운 동무들이냐!)

희택이는 그들을 바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희택이는 새삼스러히 그들에 대한 고마운 정으로 가슴이 메여 올랐다.

이곳 년장한 로동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며 가지가지의 추억들이 구름처럼 떠 올랐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이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며칠 후였었다. 본래 흥남 비료 공장의 공장장이던 왜놈《오이시(大石)》란 놈은 공장을 조선 인민에게 넘겨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놈은 주제 넘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이 공장은 조선 사람의 공장 아닙니다. 우리 일본 재벌《노구찌》의 공장입니다. 그러니 줄 수 없습니다.》

이때 그리고리예브를 비롯한 쏘련 군대 동무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 왔다. 그들은《오이시》란 놈에게 강경히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공장은 조선 인민의 것이요. 이 공장은 조선 로동 계급의 피땀으로 건설되였소, 당신들은 이 공장을 통해 조선 로동자들의 피를 싫것 짜냈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어서 돌아 가시요. 공장은 조선 사람의 것이요!》

그렇게 되자 질겁한《오이시》는 도망치고 말았다.

그 후에도 공장 차장《다무라(田村)》란놈은 그냥 숨어 있으면서 공장 파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패망한 일제의 최후 발악으로부터 공장을 지켜내기 위하여 로동자들은 용감히 싸웠다.

우리 로동 계급이 목숨 바쳐 지켜 내고 피땀으로 복구한 공장을 미제 공중 날강도들은 완전한 재'데미로 만들었다. 《심한 곳은 평방메터당 두 개의 폭탄이 떨어졌으며 공장은 99%나 파괴되여 완전히 쑥밭으로 변하였다.》이 공장의 전쟁 피해 조사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여 있다.

그러나 영웅적 로동 계급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어려운 복구 건설의 나날이 흘렀다. 전쟁으로 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량을 증산해야 하며 그러자면 농촌 경리에 필요한 화학 비료를 시급히 생산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 밑에 그들은 허물어진 공장의 벽돌장을 정리하며 엿가락처럼 괴인 철골을 뚜두려 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몽땅 파괴되였던 40여 대의 변류기를 복구하였고 형체만 남은 포화기를 재생시켜 벌써 1955년 8월에는 다시 비료를 생산하게 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쏘련 기술자들의

방조는 켰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곳 질안 직장 건설장에서만도 어떠한가? 월끄브 기사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기술자들은 자기의 모든 정력을 아낌 없이 바쳤다. 저기 높이 솟은 63 메터의 립산화탑 건설에서만도 그들은 조선 로동자들을 도와 이동식 휘틀 조립 방법을 창안 적용함으로써 44 메터까지의 구조물 공사를 1개월이나 단축하였으며 이름 높은 채관 기능공 이완 표도로비츠 동무는 불에 달구지 않고도 능히 스텐 철판을 후릴 수 있는 새로운 곡관법을 창안하여 곡관 능률을 600%나 높이였던 것이다.

…희택이의 생각은 이렇게 끄리에 끄리를 물고 련송 줄다름 쳤다.

이때 누군가가 자기의 어깨를 가볍게 두두리는 것이였다. 처다 보니 저쪽에서 용접하고 있던 이리셴끄 동무였다. 그는 차광면을 옆에 놓으며 말했다.



《동무! 좀 쉽시다.》

청년 작업반원들은 저마다 이마의 땀을 씻으면서 이리셴끄 동지의 주위에 모여 앉았다. 언제 보아도 싱글싱글 웃기 좋아하는 인상 좋은 얼굴이였다.

싱그러운 바닷 바람이 불어 왔다. 멀리 서호진의 바다 우에서는 등대'불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리셴끄 동지는 이 황홀한 밤의 정경을 바라 보다가 문득 말하였다.

《너무 무리들을 하지 마십시요. 나는 정말 밤을 모르는 사람들을 조선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정겨운 말에 희택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들이야 제 나라를 보다 튼튼히 꾸리는 일이니까요. 우리들의 념려는 마시고 어서 당신들이나 돌아 가 쉬시요.》

《우리도 쉬여서는 안됩니다. 나와 젠주라, 벨리 동무들은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현장에서의 기술적 지도 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선 로동자들을 도와 하루 40 메터씩만 용접해 주자! 그러면 세 사람이 매일 120 메터씩 용접하거든요, 우리는 지난 20일간 벌써 2,400 메터를 용접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때까지 얼마나 용접했습니까?》

《이 공사를 시작한 후 벌써 25,000 메터씩 용접했습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참으로 조선 청년들은 영웅입니다. 당신들의 기술적 발전 속도에 경탄했습니다. 실례로 저 흡수탑 조립 공사를 불가리야에서는 1주일 걸리는데 당신들은 3~4일이면 합니다.》

청년 작업반 내에서 마사진 미국놈들의 땅크 파철을 주어다가 스텐레스 절단 로라를 창안 제작해서 절단 작업에서 1,500%의 능률을 낸 박 충순 동무가 한마디 끼였다.

《우리는 꼭 이 흡수탑 조립 작업을 8.15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리셴끄 동무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였다.

《난 래일 조국에로 휴가를 가게 됩니다. 저의 고향도 조선 처럼 아름다운 곳이지요. 조선 사람 가정의 울 밑에 해바라기가 많이 피듯이 우리집 화단에도 해바라기가 해마다 피여 난답니다.》

그의 눈에는 말 못할 기쁨이 어려 있었다.

이날 밤 이리셴끄는 고향 집에 다달아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한바탕 떠들석거리던 꿈을 꾸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였다. 생각할 수록 마음은 행복하였다. 어서 날이 밝아 그리운 고국으로 달려 가고 싶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보니 아직 새로 두시였었다. 시간이 몹씨 더딘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그는 아까 전야근 작업에서 현 희택 청년 작업반원들과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순간 그의 가슴은 어쩐지 이상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한결 같이 《우리는 이 공사를 8.15 까지 끝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8.15는 이제 한 달 남짓하였고 공사는 아직 많은 로력을 요구한다. 자기들의 해방의 명절을 보다 좋은 선물로 맞으려는 그들의 불타는 열의… 그런데 나는 한창 바쁜 통에 안온한 휴식을 찾아 고국으로 가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가슴은 정녕 괴로웠다. 그렇다고 고향에 갈 것을 단념하기도 아수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진실한 이 사람의 가슴에서는 두 가지 궁리가 암투하기 시작하였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 때 창밖에서 후두둑후두둑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후 모진 광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순간 그의 사념은 고향이 아니라 벌써 공사 현장으로 달리고 있었다. 조립해 놓은 몇개의 흡수탑 일이 걱정되였다. 아직도 그 안에 라스링그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텅 비여 있는 이 흡수탑은 모진 바람만 불면 넘어질 념려가 있었다. 만일 20 메터의 이 탑이 무너지는 날이면… 그는 더 생각할 념도 없이 후닥닥 자리에서 뛰쳐 일어 났다. 그리고는 비옷을 뒤집어 쓰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의 숙소로부터 건설장까지는 흥남시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셈이였다. 창'살 같은 비'줄기와 모진 바람이 얼굴을 후려 갈긴다. 그러나 그는 성큼성큼 앞으로 내달렸다. 현장에 도착하니 어느듯 숱한 조선 로동자들이 공사장에 나와서 태질치는 비'바람을 뚫고 흡수탑을 로쁘로 처매고 있었다. 이리셴끄도 그들 속으로 뛰여 들었다. 밤중인지라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쏘련 기술자들과 조선 로동자들은 그야말로 한뎡어리가 되여 일했다.

작업은 동틀 무렵까지 계속되였다.

이 때 회택은 소소리 높은 탑 우에 올라 가서 로쁘를 처매고 있는 사람이 이리셴끄임을 비로소 발견하였다. 그의 눈'시울은 정녕 뜨거워졌다.

〈오늘 휴가를 간다드니…〉

회택은 작업이 끝난 후 그에게로 달려가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리셴끄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난 휴가를 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새 당신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회택은 가슴이 뭉클하여 와락 이리셴끄 동무를 끌어 안았다.

회택이와 둘러선 청년들의 가슴은 이렇게 고동치고 있었다.

〈참말 고마운 벗이로구나!〉

× ×

그후 사람들은 쏘련 기술자들의 사심 없는 방조 밑에 세워진 이 탑을 친선의 탑이라 이름 지었다. 이 탑과 더불어 이리셴끄, 월끄브 등 다정한 쏘련의 벗들의 위훈은 길이 전하여 지고 있다.

본사 기자 한 희만

☆

☆ ☆

생활의 거울

고귀한 심정

룡성 기계 공장 목형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경수 동무는 소낙비 소리에 소스라처 잠을 깼다. 순간 어제 일이 문득 머리에 떠 올랐다. 어제 제품을 검사하고 창고에 인계할 때 보니 스레트로 인 창고 지붕이 주강 직장 소둔로에서 튀여 나온 쇠쪼각에 의하여 몇 군데 뚫어져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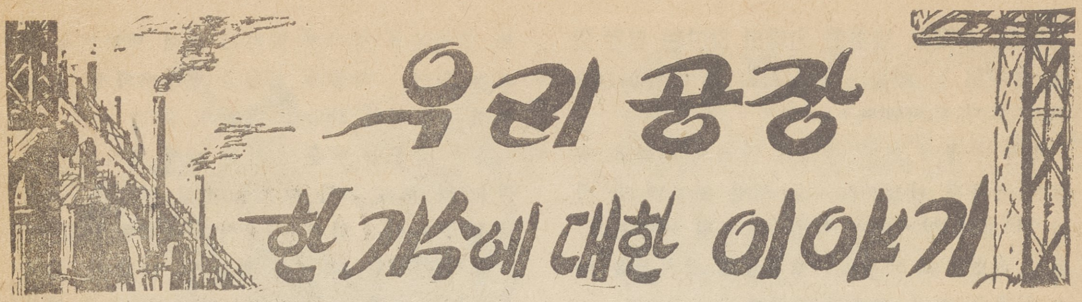
(이런 소낙비에는 반드시 비가 샐 것이고 비가 새면 생산된 제품이 못 쓰게 될 것인데…)

그는 벌떡 일어 났다. 작업복을 입고 난 그는 2키로나 떨어진 공장으로 달음박질 쳤다. 그가 창고에 이르자 누군가 혼자서 비 새는 것을 막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경비를 서던 동무였다.

한 경수 동무가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데 김 득한 동무가 가쁜 숨을 내쉬며 뛰여 왔다. 그도 한 경수 동무와 같은 마음으로 뛰여 온 것이다. 세 동무는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 속에서 서로 도우며 비 새는 구멍을 막고 창고 안의 물품에 손실이 없도록 제품을 옮겨 쌓았다.

우리 공장 청년들은 이렇게 공동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 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동무들을 자랑하고 있다.

통신원 유 기하



우리 공장 한 기수에 대한 이야기

7년 전 8월 어느 날이 였다.

젊은 청년 하나가 청진 제강소 회전로 직장으로 찾아 왔다.

그는 조심히 호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종이'장을 꺼내여 직장장 동무에게 내밀었다.

《그러니 우리 직장에 새로 배치 되여 왔군 그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드시 기술자가 되려고 생각 합니다.》

《허 그것참 훌륭한 결심이군, 함께 일해 봅시다.》하고 직장장 동무는 손을 내밀었다.

그날부터 회전로 앞에는 신입 로동자 한 청년이 나타 났다. 그가 바로 리 경복 동무이다.

가혹한 전쟁의 폭풍이 휩쓸고 간 공장 구내는 폭탄 구덩이와 파괴된 건물들, 쇠쪼박지들이 널려 있을뿐, 어느것 하나 제대로 있지 않았다.

리 경복이 로 앞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첫날부터 걸린 것은 기술 문제였다. 기술이 없이는 더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경복 동무는 하루속히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기술—이것은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초기 그는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직장 기능전습반에 망라 되여 초보적인 기술 리론들을 학습하였다.

로장은 경복 동무에게 차근차근 이야기 해주었다.

우선 파괴된 로를 정성껏 수리하여 조업을 개시하는게 급선무이고 로당 하루 생산량을 높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루속히 로에 익숙하여 체계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글이글 끓어 번지는 로 안을 들여다 보던 경복 동무의 머리에는 며칠 전 직장 민청 위원장 동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기술이란 결코 신비한 것은 아니요. 누구나가 다 기술자가 될 수 있소. 오직 불타는 정열과 피나는 노력에 달려 있소. 우리 서로 꾸준히 학습 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못할 일이란 하나도 없소.…》

경복 동무는 로장을 따라 다니면서 로의 구조로 부터 광석들의 화학적 성분에 이르기 까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 했다. 한편 그는 직장 기술 학습반에 망라되여 금속 공학 리론, 야금학, 화학 등의 기술 과목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도 시작 했다.

그러나 경복 동무에게는 이러한 과목들이 몹시 힘들었다. 그는 초중을 졸업 했을 뿐이며 로를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였다.

그렇지만 그는 굳게 마음 먹고 이악하게 달라 붙었다.

로동의 나날에 경복은 몸도 마음도 무척 자랐다. 몇해가 지나서 경복은 제철소 직공 학교를 졸업하고 회전로 6 급공으로 일하게 되였다. 경복 동무는 기수가 될 전망 학습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하루하루 엄격하게 학습 시간을 지켰다. 계속적으로 낮'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륜번제로 전야근, 후야근도 해야만 하였기에 그는 그에 맞게 자체 학습 계획도 변경시켜 진행 하였다. 그가 낮'일을 할 때엔 밤 늦도록 그의 집 창문에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밤'일을 할 때에는 피로도 잊고 낮에 학습하였다.

경복 동무는 피곤도 느꼈지만 그럴때마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장 속에 새겨 보았다.

수상 동지는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술

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없이는 우리 인민 경제를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교시 하시였다.

경복 동무는 어떤 애로와 피곤도 그것을 용감히 극복해 나갔다. 그는 매일 남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학습 했고 길 가면서도, 휴식 하면서도 수첩을 펼쳐들고 공식들을 따로 외우는 것을 습관화 하였다.

그는 계획적으로 검정 시험 과목을 준비하였다.

그는 검정 시험에 응시하라는 통지를 받고 시험을 치려 갔다.

그러나 그는 첫 시험에서 네 과목을 면저 쳤는 데 공교롭게 기본 과목들인 야금학과 제강 과목에 불합격 되였다.

그는 공식과 리론 문제는 잘 알았지만 실제 생산 문제와 결부시킨 문제를 몰랐던 것이다. 경복 동무는 집에 돌아 오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나는 기술이라 하여 순수 리론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일하는 로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다. 학습과 생산을 결부시키지 않고 그저 교조적인 학습을 하였다.

경복 동무는 배운 지식을 실제 생산 과정에 적용해 보고 또한 그것을 검열 하였다. 그는 단 하루도 빠짐 없이 3~4 시간 학습을 하였다.

그의 완강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경복 동무는 드디여 기술 자격 검정 시험 전 과목에 합격하여 기수의 자격을 받았다.

회전로—그것은 훌륭한 학교 였다. 그는 로동 속에서 일하면서 붉은 기수가 되였다. 그가 기수로 되기 까지에는 그야말로 완강한 그의 의지와 피나는 로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오늘도 경복 동무는 떳떳한 공화국의 기수로 동해 바다'가에 자리 잡은 청진 제강소 회전로에서 일하면서 기사가 되기 위해 청춘의 정열, 청춘의 기백을 남김 없이 발휘하고 있다.

통신원 김 경철



평범한 일

황남 연안군 개안 농업 협동 조합 조합원들은 양돈공 처녀 김 옥현 동무를 몹시 자랑한다.

당의 축산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양돈공 김 옥현 동무는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고 있다.

그는 좀처럼 돼지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느 날 깊은 밤에 있은 일이다. 당번이던 한 양돈공이 돼지 우리를 순회하고 있을 때 그는 뜻하지 않게 웬 그림자를 발견했다. (누굴가? 혹시?) 수직원은 조심조심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김 옥현 동무였다. 그는 새끼 날 어미 돼지를 그냥 두고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밤 그는 교박 새끼를 낳는 어미 돼지를 돌보아 13 마리의 새끼를 아후 사고 없이 받아냈다. 그에게서 이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다.

그는 어미 돼지의 영양을 좋게 하려고 매일과 같이 개구리를 잡아다 먹이기도 한다. 그는 좋은 사료 원천지를 탐구하기도 하고 영양가 있는 청사료를 해다 먹이기도 한다.

김 옥현 동무는 금년도 자기 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할 결의에 충만 되여 있다.

통신원 박 진호



1) 《민주당》지배층과 허 정 일당이 남조선 인민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횡탈하려는 《선거》 극의 진상을 보기 위하여 나는 남조선 각지를 순회하기로 하였다.



2) 나는 로케트를 타고 부산으로 먼저 갔다. 부산시 서구 갑 선거구 한 뒤'골목에서 2~3명의 《혁신》 정당 《선거 운동원》을 만났다. 그들은 말도 못하고 앞을 보라고 손질하는 데 수십명의 《민주당》 테로 분자들이 빼곡이 앉아 있었다. 자기들이 《선거》 사무실에 드나들지 못하게 밤낮을 밝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가 립후보한 서 모의 《선거》 사무장을 만나니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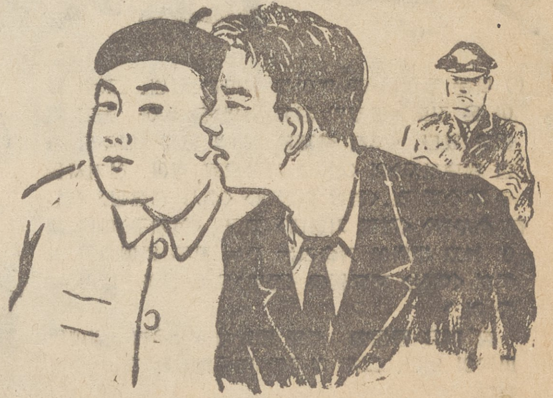
《이 편지를 받은 즉시로 손을 떼라 불응하면… 뒈진다.!》

그것은 협박장들이 였다.

3) 서울 룡산에서 《립후보자》들의 《합동 정견 발표회》가 있다 하여 나는 부랴부랴 그리로 갔다. 현장에서는 《때려라!》 《죽여라!》 《사람 살려라!》하는 웨침과 비명으로 하여 스산하였다. 몸이 피투성이가 되여 겨우 빠져 나온 무소속 《립후보자》는 말하기를 《말 마십시오! <민주당> 놈들이 어느 집회에서나 미리 테로 분자들을 대기시켜 자기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기색이 보이기만 하면 사람을 때리고 치고 하지요. 이건 리 승만 정권때 보다 더 합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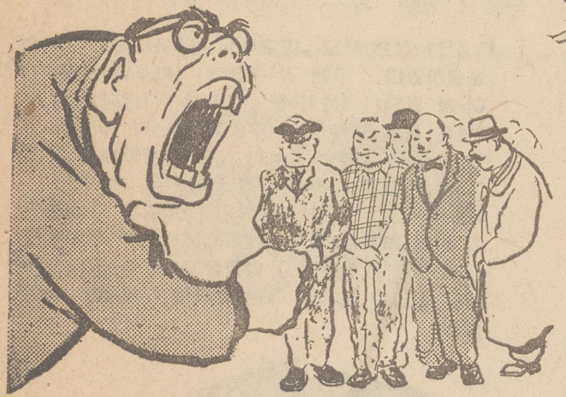
4) 나는 경상 북도 대구에서 《대구 일보》기자와 동행하였다. 그는 귀'속말로 《민주당》지배층과 허 정 일당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국》을 시켜 《언론 사찰 보고서》를 꾸미고 있는데 이것은 괴뢰 사복 경찰을 미행시켜 신문 기자들을 감시하며 언론 탄압과 폭행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눈을 뜨고 다니자니 놈들의 죄행밖에 보이지 않고 말을 하자니 사복 경찰의 몽둥이와 감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눈감고 입다물고 살 수 밖에 없는 세상 입니다.》하고 그는 주먹을 부르쥐며 말하였다.





5) 내가 미국 대사 맥코노이를 찾아가니 그는 《민주당 대표 최고 위원》 장 면과 밀담을 하고 있었다. 장 면은 주구답게 아량을 떨면서 《한국 백성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 그저 원조만 주십시오 헤…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만 하게끔 해주시면 그저 모든 것을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사외다.》

맥코노이는 그제사 승냥이 같은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6) 나는 말없이 장 면이를 뒤따라 섰다. 그는 돌아 온 길로 《민주당 최고 위원》을 몰아 놓고 호통을 쳤다. 《부정 축재금 300억 환을 〈민주당 공헌 립후보자〉의 〈선거〉 자금으로 주어 선거자들을 매수할 것. 〈경찰 기동대〉 〈수사 경찰관〉 〈검. 찰 수사반〉 〈검찰 기동대〉 등을 〈선거구〉마다 풀어 놓고 비위에 거슬리는 자는 모두 없애치울 것 특히 〈혁신〉 정당들을 〈좌익〉으로 몰아 내려 누를 것.》

장 면은 뚱뚱한 배를 탕탕치며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저 미국만 믿으면 돼.》하고 소리쳤다.

7) 나는 남조선 《국회》,《선거》가 진행되는 날 대전의 한《선거장》으로 달려 갔다. 《선거장》앞에서 인민들은 《선거》 투표함을 내 놓고 불 사르고 있었다. 한 청년에게 물으니 《민주당 립후보자》가 위조한 지지표만 해도 투표자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인민들은 격분하여 《부정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웨치며 《민주당 립후보자》를 잡으러 떠나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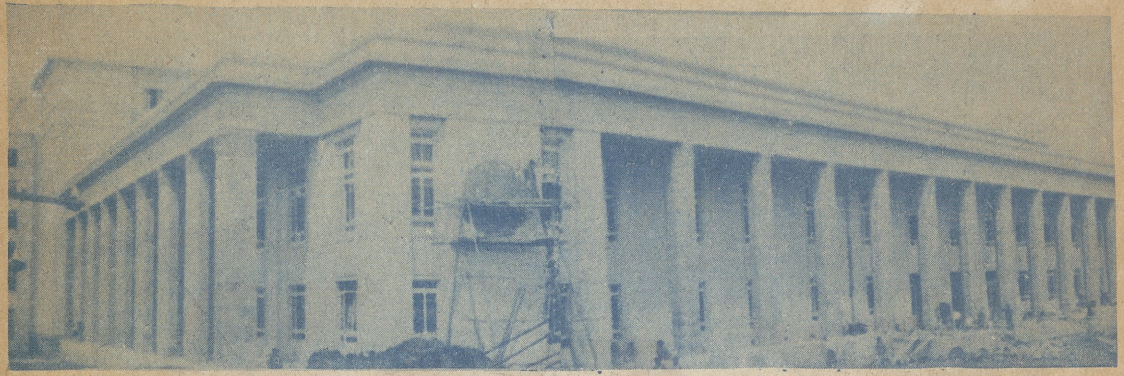
나는 다른 선거장들을 보기 위하여 이곳을 떠나 경북 고령으로 갔다. 거리에는 어린 아이들이 모여 《민주당》이 《선거》 협잡으로 리용한 부정 투표 용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러니 《민주당》 놈들이 횡행한 《무데기 투표》의 협잡 놀음은 과히 짐작할 수 있었다.



8) 이때 《맥코노이 당장 물러 가라》《부정 선거 다시하라》, 《자유당 민주당 다 물러 가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들의 시위 대렬이 흘러 갔다. 남조선 전역에서 이런 투쟁은 치열히 전개되고 있었다. 3,000 여명의 고성군 인민들을 비롯하여 삼천포, 창원, 영양, 밀양, 김천, 울산, 괴산, 서천, 광산, 금릉, 창녕등 나는 가는 곳 마다에서 인민들의 투쟁을 목격하였다. 《민주당》 지배층이 미제만 믿고 제아무리 날뛰여도 인민들의 앞에서 리승만의 처지를 면치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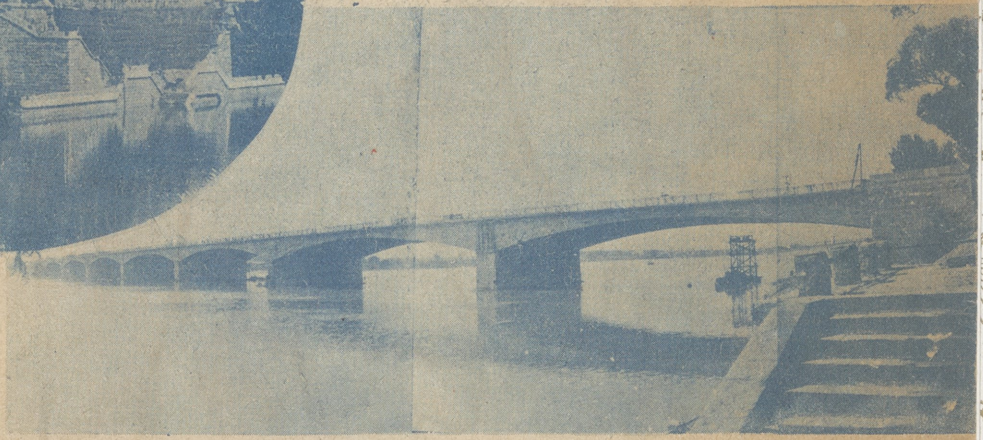
영광의 민주 수도—평양



↑ 혁명 전통 교양의 학교—조선 혁명 박물관



← 대동강반에 자리 잡은 옥류관



↑ 본평양과 동평양을 련결한 옥류교의 위용



← 예술의 전당-평양대극장

